

소비자보호 · 분쟁

해외 카드 사용 61.0억달러, 결제 뒤 절차는 무엇으로 갈리나

분실·도난과 할부 항변에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에 적용되는 항이 다르다

한국은행의 카드 해외 사용 통계와 여신전문금융업법·할부거래법을 대조해 카드 종류, 분실·도난 통지와 할부 항변이 만드는 절차 차이를 확인했습니다.

발행
2026.08.19

연번
2026_43

읽는 시간
6분

작성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연구소의 판단

연구소는 해외 카드 사용에서 갈리는 것을 환율이 아니라 분쟁 절차로 본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는 위조·부정사용에 대한 책임을 신용카드등에 함께 정했다. 분실·도난 통지 전 사용의 소급 책임은 신용카드에만 정했다. 할부거래법 제16조 제2항의 항변도 신용제공자에게 아직 지급하지 않은 할부금에만 미친다.

확정된 사실

2026년 1분기 거주자가 카드로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61.0억달러였습니다. 전분기보다 0.1% 줄고 전년 동기보다 14.2% 늘었습니다.

항목	확인된 내용	비고
해외 사용금액	61.0억달러	2026년 1분기
전분기 대비	-0.1%	거주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4.2%	거주자 기준
신용카드	-1.3%	전분기 대비
체크카드	+2.4%	전분기 대비
외국인 국내 사용	35.7억달러	전분기 -5.4% · 전년 +30.2%

통계의 카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을 포함하지만 분쟁 절차는 카드 종류에 따라 같지 않습니다.

해외 결제라는 이유만으로 국내법상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해외 가맹점·결제망·통화가 없으면 사실확인과 환급 처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구조인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는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얻은 카드정보로 인한 사용의 책임을 신용카드업자에게 두되 회원의 고의·중대한 과실 등 예외를 둡니다. 이 규율은 법이 정한 신용카드등에 적용됩니다.

분실·도난 신고 전 60일 이내의 사용에 관한 소급 책임은 신용카드에 별도로 규정돼 있습니다. 신고가 늦거나 체크·직불 방식이면 같은 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어 약관과 거래유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할부거래법상 항변권은 일정 금액 이상의 신용카드 할부계약에서 공급자의 채무불이행 등 사유가 있을 때 아직 신용제공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절차입니다. 이미 낸 돈의 자동 환급이나 일시불 취소와는 다릅니다.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은 해외에서 카드를 잃어버렸거나, 배송·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해외 할부 결제를 한 이용자입니다. 카드 종류와 결제방식, 신고시점이 첫 분기점입니다.

20만원 이상을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하고 10만원이 남았다고 가정하면 항변이 인정돼도 직접 멈출 수 있는 범위는 원칙적으로 아직 내지 않은 10만원입니다. 이미 낸 금액은 별도 취소·반환 청구가 필요합니다.

카드사가 해외 가맹점에 이의를 제기하는 차지백 절차는 국제 카드망 규칙과 기한의 영향을 받습니다. 법정 항변권과 같은 제도가 아니므로 접수할 때 어떤 절차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할부 결제	20만원	가정
이미 지급	10만원	별도 반환 쟁점
미지급	10만원	항변 인정 시 지급거절 범위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01 카드 유형의 표시 앱과 명세서에서 신용·체크·직불 및 할부거래 여부를 분쟁 절차와 함께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02 해외 가맹점 확인 가맹점의 실제 소재지·상호와 결제대행사가 달라 이의제기 상대와 기한을 찾기 어렵습니다.
03 차지백과 법정 항변 카드망 절차와 국내법상 항변권의 접수창구·효과·기한이 함께 안내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04 환율 차이 취소·환급 시점의 환율과 해외서비스 수수료 처리 기준은 카드사 약관과 카드망 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할 일

- 국민
- 카드를 잃거나 부정사용을 발견하면 즉시 카드사에 신고하고 접수번호·시각·거래내역을 저장합니다.
 - 물품·서비스 미제공은 주문서, 배송예정일, 판매자와의 연락, 결제방식과 남은 할부금을 한 표로 정리합니다.
 - 카드사에 차지백인지 할부거래법상 항변인지 확인하고 각각의 접수기한과 추가서류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 대상회사
- 해외거래 이의신청 화면에 카드 종류·일시불/할부·신고 전후에 따라 가능한 절차를 구분해 표시합니다.
 - 접수 뒤 7영업일 내 처리방향과 추가자료, 카드망 기한을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 당국
- 차지백과 법정 항변권을 구분한 공통 안내문과 해외가맹점 식별정보 표시기준을 마련합니다.
 - 카드 종류별 분실·도난 책임 조항이 앱 약관과 신고 화면에서 일관되게 안내되는지 점검합니다.

· 차지백과 국내법상 항변·부정사용 보상의 통합 안내기준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A

절차 통합 안내

B

약관별 분산

· 금융감독원·여신금융협회의 해외결제 분쟁 표준 안내와 카드사 앱 개편 여부를 확인합니다.

함께 읽을 것

4개의 연결 지식

금융상품 신용카드

금융상품 체크카드

피해구제 카드 부정사용 보상

금융제도 금융분쟁조정제도

확인한 사실·숫자 6건

6 확인 항목	5 1차 자료	1 파생 계산	6개월 뒤 추적 예정
------------	------------	------------	----------------

1차 발표기관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파생 1차 자료의 수치를 이용한 계산

01	1차	2026년 1분기 거주자 카드 해외 사용금액 61.0억달러 한국은행 국제국 2026년 5월 발표	원문 열기 ↗
02	1차	전분기 -0.1%, 전년 동기 +14.2%; 신용 -1.3%, 체크 +2.4% 한국은행 카드 해외 사용실적	원문 열기 ↗
03	1차	위조·부정사용과 분실·도난 카드 책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원문 열기 ↗
04	1차	할부계약에서 소비자의 항변권과 미지급 할부금 지급거절 할부거래법 제16조	원문 열기 ↗
05	1차	신용카드 할부 항변의 금액 기준 할부거래법 시행령	원문 열기 ↗

20만원 할부 중 10만원을 이미 낸 가정에서 미지금액은 10만원

20만원-10만원=10만원

추적 예정

해외결제 분쟁의 카드 종류별 통계와 차지백·할부항변 표준 안내, 카드사 앱의 접수 절차를 확인합니다.

정정 이력

공개 연번을 실제 게시 순서에 맞춰 NB-2026-043으로 바로잡고, 통계 기준기간과 법정 항변·카드망 절차를 구분했습니다.

면책 고지

이 글은 연구소의 분석이며 한국은행·감독기관·카드사의 공식 입장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상·항변·환급은 카드 종류, 신고시점, 결제방식, 약관과 증빙에 따라 달라집니다.

작성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